

해외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

변 기 웅 (고려대학교)**

이 석 열 (남서울대학교)

김 수 홍 (고려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해 그 연구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내 고등교육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 추가적 연구 필요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14개의 국제기구 및 해외 고등교육 연구기관에서 최근 10년간(2000~2009) 발간한 총 438편의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연구진이 고안한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주제별·시기별·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의 고등교육 정책연구는 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확보를 중심으로 교육소비자인 학생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제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교육의 질 보장, 국가/비교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전반적 동향은 시기별 각국 정부(혹은 국제기구)의 정책적 관심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경우에도 (1) 거시적·시스템적 효율성 제고 이슈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쳐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2) 현안 문제만이 아니라 폭넓고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미래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제반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고등교육, 정책연구, 연구동향, 연구주제

* 이 논문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정책연구소 육성사업(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함께 고등교육이 국가경쟁력 창출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 민간단체, 연구센터, 대학, 학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있다(Altbach, 2006).

고등교육은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체제와 교육활동에 영향을 행사하는 공적 작용으로 목적지향성을 가지며, 또한 의도성을 가진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도 흔히 (1) 연구주제가 실제 문제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 폭넓고 깊은 현장지식이 요구되어 현장행정가의 연구 참여가 두드러지며, (3) 다학문적, 학제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Teichler, 1996). 따라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대다수가 넓은 의미에서의 ‘정책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접근방법 중 하나로서 다양한 고등교육 연구기관에서 수탁 혹은 직접 수행한 ‘정책연구’의 동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에서 수행된 소위 ‘정책연구’의 경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국가에서 핵심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정책 이슈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각 국가의 정책연구기관, 또는 대학부설 고등교육 정책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국가별·지역별·시기별로 쟁점화된 국제적 고등교육 이슈를 파악하는데 보다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 연구의 실천적 문제해결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고등교육 연구는 현재의 고등교육 발전 동향을 민감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최소한 5년 이상의 미래에 어떤 이슈들이 부각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연구하여 추후 해당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될 때 적시에 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증거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Teichler, 2003). 이렇게 추후 쟁점이 될 이슈를 파악하는 데는 고등교육 현상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통찰(insights)이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기초적 지식으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의 선진국에서 과거와 현재에 어떤 정책이슈가 대두되고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¹⁾.

하지만 이러한 정책연구 분석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고등교육 분

아에서 어떤 정책연구가 수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거의 대부분의 ‘고등교육 연구에 대한 연구(예컨대 Siverman, 1987; Volkwein, Carbone, & Volkwein, 1988; 신정철 외, 2008 등)’는 거의 예외 없이 학술지 수록 논문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해 왔으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이다²⁾. 특히 국내 고등교육 정책수립이나 정책연구의 발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해외 고등교육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국내 고등교육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연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2000-2009) 해외 국제기구 및 고등교육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주로 연구된 주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둘째, 지역별·시기별로 구분해 볼 때 이러한 주제별 차이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외국의 정책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국내 정책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1) 예컨대 Teichler(1996; 2000)는 1960년대 이후 유럽지역의 고등교육 연구주제의 변천동향을 (1) 교육투자과 경제성장(1960년대 초); (2) 고등교육의 팽창과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 및 접근기회의 형평성 문제(1960년대 중후반); (3) 학생소요의 여파로 인해 교육과정, 교수방식, 진로지도에 있어 학생 중심적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1970년대 초); (4) 졸업생의 취업을 제고 및 교육과정의 적절성 재검토(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 (5) 고등교육 거버넌스와 관리(1980년대 중반~1990년대); (6)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세계화(2000년대) 등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대부분의 주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주된 이슈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는 거꾸로 말해서 유럽지역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의 정책이슈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미래의 고등교육 이슈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1991년 대학교육협의회(송미섭, 1991)에서 해방이후 1989년까지의 한국 고등교육관련 문헌을 정리하면서 피상적으로나마 고등교육 정책연구동향을 파악한 적이 있고, 2008년 홍익대 특성화 사업단(조동섭 외, 2008)에서 역시 해방 이후 2007년까지 고등교육정책 관련 연구 목록을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경우 모두 국내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보다 고등교육 연구가 앞선 해외의 정책연구 현황파악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연구동향’ 연구는 특정 학문 혹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크게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양적 접근은 연구 성과들의 양적 분류를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주로 외형적인 연구 흐름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면서 연구 동향의 분포와 넓이에 집중한다. 질적 접근은 주관적 접근으로 실증적 분류가 아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동향 설명을 통해 전지적(全知的) 판단을 하면서 연구 흐름의 질이나 성과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양적 접근은 연구 흐름의 질이나 성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생략되기 쉽고, 반대로 질적 접근은 주관적인 해설과 추측에 의존한 추론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연구동향’ 연구에서 양적 분석은 특정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신현석, 2002). 이러한 양적 접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대상’과 ‘주제영역’의 확정과 관련된 논의인 바, 특히 고등교육의 영역에 대한 구분은 연구 성과의 양적인 분산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의 경향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1) 연구 대상으로서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연구 수행주체와 (2) 고등교육 주제영역 확정에 관련된 선행논의 및 본 연구에서의 접근방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1. 외국의 고등교육 정책연구 수행 주체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주체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연구자에서부터 학문공동체인 민간학회, 정부와 민간 연구소, 정부부처,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Altbach(2006)는 그의 연구에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고등교육 연구수행 주체들을 유형화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연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기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UNESCO, OECD라고 볼 수 있다. 또한 World Bank는 주로 제 3세계국가의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고, EU의 교육 분야 연구기관인 Eurydice는 EU국가 및 기타 유럽국가에 대한 교육관련 데이터 수집과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고등교육 정책연구 수행주체 중 하나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며 정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이 있다.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 산하 RIHE(Research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와 같이 대학에 연계를 두고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State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dies(SHECB),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NCES), 영국의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와 같이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위해 연구를 수행/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러 대학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되는 대학 간 협의체가 고등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과 유럽지역의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EUA),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IAU)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이 범주에 속하며 회원교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많은 고등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넷째, 대학소재 고등교육 연구센터 및 프로그램도 중요한 고등교육 정책연구 수행주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Altbach(2006)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약 500여개의 대학소재 고등교육 연구센터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연구센터는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여 고등교육과 관련한 많은 질 높은 정책연구들을 산출해 내고 있는 핵심적 정책연구 수행기관들이다.

다섯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주로 영어권 국가들의 규모가 큰 대학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단위대학 행정에 관한 대학별 연구소(Institutional Research Office)가 있다. 이는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개별대학들이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대학 내의 행정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별도의 연구소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비정부 기관(Priva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을 들 수 있다. 민간기관이 고등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는 미국의 PROPHE(Program for Research on Private Higher Education), IHEP(The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Policy)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해외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연구 수행기관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해외 주요 고등교육 정책연구 수행기관

구 분	고등교육 기관 명칭
국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Bank
	Eurydice
외국	영국의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정부기구	호주교육부 DEEWR(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대학 연합체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y and Land Grant Colleges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해외 대학부설 고등교육 연구센터	미국 UCLA 부설 HERI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부설 CHE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부설 CSHE
	Michigan State University 부설 CHAE
	University of Michigan 부설 CSHPE
	UC Berkeley 부설 CSHE
	네덜란드 Universiteit Twente 부설 CHEPS
	독일 Universität Kassel 부설 INCHER
	영국 University of London 부설 IHES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부설 CSHE
	일본 히로시마 대학(廣島大學) 부설 RIHE
	쓰쿠바 대학(筑波大學) 부설 RCUSU
	중국 北京大學 부설 IHEPU
	華中科技大學 산하 School of Education
기타	Program for Research on Private Higher Education(PROPHE)
해외	Nat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Management System(NCHEMS)
연구소	The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Policy(IHEP)

2. 선행연구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주제영역 분류기준

실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정책연구 동향분석의 전제조건으로서 ‘무엇이 과연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범위에 포함 되는가’ 혹은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할 수 있는 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

보다 고등교육의 연구대상과 범위에 대한 연구자들 혹은 학계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변기용, 2009). 이제까지의 고등교육에 대한 서지연구(bibliographies) 혹은 ‘고등교육 연구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의 주제 혹은 대상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표 2>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연구영역들을 요약하고 있다.

<표 2> 선행연구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주요 주제영역 분류기준

주제영역	Dressel & Meyhew (1974)	Goldschmidt et. al (eds.) (1984)	Quay (1985)	SRHE (2004)	OECD(2004)
1.노동시장/자격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사회적, 정치적 이슈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2.연구/혁신		과학기술 및 연구		연구	연구, 혁신; 지역발전과 고등교육의 역할
3.형평성		접근기회 및 입학제도			형평성
4.재정/경제	재정, 경제, 재정운용	고등교육 경제		재정 및 물리적 자원	재정
5.인적자원	교수, 학생, 행정직원 등	학문적 직업(Academic profession); 학생, 사회화	학생, 교수, 행정가 및 지원인력 (Support Staff)	학생, 스태프	인적자원
6.행정/지배구조	고등교육 행정, 조직,구조,거버넌스, 고등교육법 및 그 해석	정책, 기획, 조직	연구, 기획, 정책개발; 행정행위의 특성	기관경영	시스템 기획, 거버넌스, 규제
7.책무성/ 질 보장					질 보장
8.세계화		유학생	비교고등교육		국제화
9.교수학습/ 교육과정/ICT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수-학습			
10.역사/ 철학	고등교육의 목적과 가치	고등교육사	고등교육의 역사와 철학		
11.특정 유형 /영역 연구	고등교육기관의 유형과 수준	고등교육기관 및 구조	2, 4년제 고등교육기관, 성인/평생교육		
12.국가/비교연구				국가 고등교육시스템 및 국가 간 비교연구	
13.기타	고등교육 건물 및 시설; 상담, 평가 및 진로지도	고등교육 통계	고등교육기관의 시설관리	분과학문분야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연구 및 접근방식	

자료: 변기용(2009). 고등교육의 학문적 성격 및 지식기반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168쪽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 연구의 포괄범위와 구체적 분류방식이 학자들마다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문으로서의 고등교육’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합의(Paradigmatic Consensus)가 고등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울러, 거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학문으로서 고등교육에 대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이나 ‘조직원리(Organizing theme)’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연구주제를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의 고등교육 주제영역 분류기준

본 연구는 고등교육 정책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의 분류기준을 참고한 후,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을 개발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본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교육 연구영역 및 분류기준 설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고등교육 연구에 대한 연구(Meta analysis) 중 내용연구(Content analysis)에 주로 사용되는 일종의 귀납적 분류방식이다. 이는 기존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선행연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개념적으로 고등교육의 연구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빈도수가 없거나 매우 적을 경우 주제 분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고등교육 연구영역 및 분류기준 설정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분야의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는 Dressel & Meyhew (1974), Goldschmidt et. al(eds.) (1984), Quay (1985),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SRHE) (2004), OECD(2004) 등의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총 13개의 상위주제와 각 상위주제별로 4~8개 정도의 하위주제로 구성된 분류기준 초안을 작성하였다 (<표 3> 참조).

둘째, 이 분류기준 초안에 따라 일부 확보된 연구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주제별 분류를 해 본 후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초안을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1) 분류기준 초안에서 ‘(고등교육기관)구성원’이라는 상위주제의 하위 주제로 포함된 ‘학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았고, 또한 학생에 관한 주제는 또 다시 다수의 하위주제로 분류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학생’을 ‘구성원’의 하위주제가 아니라, 독립

된 상위주제로 설정했다; (2) 상위주제 중 ‘형평성’은 결국 학생의 입장에서의 형평성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서 학생의 범주에 포함된 하위주제로 설정하였다; (3) ‘구성원’ 항목의 하위주제였던 ‘학생’이 상위주제로 독립되면서 ‘교수’와 ‘스텝’, ‘행정가’라는 하위주제를 포괄하는 상위주제의 명칭을 ‘교직원’으로 수정하였다; (4) ‘국가/비교 연구’는 다른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는 내용면에서의 주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주제에 대해 국가별 비교연구를 한 경우(예컨대, 재정배분방식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는 해당 주제에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여러 주제를 통합하여 연구한 것(예: OECD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 비교연구)이거나 특정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룬 경우(예컨대, Higher Education in Denmark - 국가연구)에 한해 국가/비교연구로 분류하였다.

셋째, 마지막으로 UNESCO, OECD 등 분석대상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모두 수집한 후 1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상위/하위 주제별로 분류해 본 결과, 당초 설정한 주제영역에 해당되는 연구보고서가 거의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분류기준을 재차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한 내용을 보면, (1) 개념적으로 설정된 1차 수정안에서 적합한 주제영역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landscape 2020: Scenarios and strategic debates”(CHEPS)나 “Higher education to 2030”(OECD) 등은 기존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적절한 주제영역을 찾기 어려웠다. 최근 고등교육 연구에서 비전 연구 등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미래전망’이라는 새로운 상위주제를 설정하였다; (2) 수집된 전체 자료를 1차 수정안에 따라 분류했을 때 빈도수가 매우 낮은 경우도 발생했다. 빈도수가 지나치게 적은 하위주제 영역은 독립된 영역으로 존치시킬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개념적으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다른 영역과 통합하였다³⁾; (3) 활용성 측면에서, 상위주제 영역 전체가 빈도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에는 이를 상위주제 범주에서 삭제하고 ‘기타’ 영역의 하위주제로 재배치함으로써 상위주제 영역의 숫자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예컨대, ‘대학사/철학’의 경우 상위주제에서 삭제하고, 대신 기타영역의 하위주제로 포함시켰다; (4) ‘특정기관’이라는 상위주제는 다른 주제영역과 개념적으로 중첩되므로 기본적으로

3) 예컨대, 학생 영역의 하위 주제인 중도탈락, 학업성취도, 상담 및 평가는 이 개별 하위주제에 대한 빈도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하였고, ‘교직원’의 하위영역인 ‘스텝(시간강사 등)’은 빈도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도 불분명한 점이 있어 ‘교수’ 항목과 통합하였다. 또한 빈도수와 상관없이 상위주제에 포함된 하위주제 영역이 당초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으므로, 비슷한 성격의 하위주제는 가급적 통합하여 분류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최종 분류기준을 확정하였다.

로 삭제하되, 특정한 목적의 고등교육기관(교원양성기관, 부족대학, 영리대학, 기능대학, 농업교육기관 등)을 다룬 연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타’ 영역에 소속된 독립된 하위주제로서 ‘특정분야 교육기관’ 범주를 새로이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표 3>은 상위주제를 중심으로 분류기준 초안에서부터 1차 수정(안)과 최종(안)에서 나타난 차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3> 고등교육 연구영역 및 분류기준: 초안과 1차/최종 수정안 비교

초안	1차 수정(안)	최종 수정(안)
1. 노동시장/자격	1. 노동시장/자격	1. 노동시장/자격
2. 연구/혁신	2. 연구/산학연 협력	2. 연구/산학연 협력
3. 형평성	3. 학생	3. 학생
4. 재정/경제	4. 재정/경제	4. 재정/경제
5. 구성원	5. 교직원	5. 교직원
6. 행정/지배구조	6. 행정/지배구조	6. 행정/지배구조
7. 책무성/질 보장	7. 책무성/질 보장	7. 책무성/질 보장
8. 다양성/특정 영역	8. 특정기관	8. 국제화/세계화
9. 국제화/세계화	9. 국제화/세계화	9. 교수학습/교육과정/ICT
10. 교수학습/교육과정/ICT	10. 교수학습/교육과정/ICT	10. 기획/미래전망
11. 대학사/철학	11. 대학사/철학	11. 국가/비교연구
12. 국가/비교연구	12. 국가/비교연구	12. 기타
13. 기타	13. 기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 실제 적용된 주제영역 분류기준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상위주제 12개 범주(기타를 빼면 11개의 주제영역)와 이러한 각각의 상위주제에 속한 총 43개의 하위주제(상위주제별로 2~6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본 연구의 고등교육 정책연구 주제영역 분류기준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영역
1. 노동시장/자격	1-1. 인력수급/노동시장정보 1-2. 진로지도 및 취업률 1-3. 직업교육/학습·고용연계 1-4. 학위/자격/소양
2. 연구/산학연협력	2-1. 연구정책 및 거버넌스 (Research Policy & Governance) 2-2. 국가/지역혁신체계 (National/Regional Innovation) 2-3. 산학협력
3. 학생	3-1. 입학정책 3-2. 중도탈락/학업성취도/학교생활 (상담/평가) 3-3. 접근기회/형평성 (지역격차, 빈곤계층, 장애인, 소수민족) 3-4. 남녀평등
4. 재정/경제	4-1.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4-2. 재원확보

상위 주제	하위 주제 영역	
	4-3. 재원 배분방식	4-4. 등록금/장학금
	4-5. 재정지원 성과평가 (투자회수율)	
5. 교직원	5-1. 교수 (업적평가 및 보수, 충원, 임용방식, 정년보장 등)	
	5-2. 행정가 (총장선출방식, 경력개발 등)	
6. 행정/지배구조	6-1. 대학 자율성/지배구조	6-2. 구조조정/특성화
	6-3. 학제/시스템 구성	6-4. 고등교육법령/기준
	6-5. 학사행정	6-6. 경영혁신
7. 책무성/질 보장	7-1. 대학평가/정보공개	7-2. 평가인증(acceleration)
	7-3. 교육의 질 보장	
8. 국제화/세계화	8-1. 국제화 일반	8-3. 교육협력
	8-2. 학생/연구자 이동	8-4. 시장개방
9. 교수학습/ 교육과정/ICT	9-1. 교수/학습 방법	9-2. 커리큘럼
	9-3. ICT 활용	
10. 기획/미래전망	10-1. 시나리오/비전	10-2. 체제개혁/경쟁력 향상
11. 국가/비교연구	11-1. 국가연구	11-2. 비교연구
12. 기타	12-1. 고등교육 통계	12-2. 고등교육기관 분류
	12-3. 대학사/철학	12-4. 사회적 자본
	12-5. 특정분야 교육기관 (교원양성기관, 부족대학, 영리대학, 기능대학, 농업교육기관 등)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최근 10년간(2000년~2009년) 해외 주요 고등교육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을 연구범위로 설정한 것은 모든 정책연구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이 시간과 인력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오래 된 정책연구의 경우 현실적 활용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연구 보고서’로 연구대상을 한정한 것은 정책수립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의 동향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당초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던 고등교육 정책연구 수행기관은 <표 1>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Altbach의 연구(2006)를 기초로 최근 고등교육 관련 정책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기관들을 망라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진행과정에서, 자료의 수집가능성과 수집 자료의 연구목적에의 적절성 여부에 따

라 당초에 고려하였던 일부 기관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⁴⁾. 결국 해외 연구기관의 경우 국내에서 충분히 자료에 접근하고 입수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무엇보다 자료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초기에 연구대상으로 고려하던 연구기관의 일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인터넷상으로 충분한 수의 연구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14개 주요 해외 고등교육 정책연구 수행기관은 <표 5>와 같다.

<표 5>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고등교육정책 연구수행 기관 및 보고서 편수

구 분	고등교육 기관 명칭		분석 편수
국제기구	OECD		18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56
	World Bank		86
	Eurydice		9
대학 연합체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24
해외 대학부설 고등교육 연구센터	미국	UCLA 부설 HERI	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부설 CHEPA	20
		UC Berkeley 부설 CSHE	13
	네덜란드	Universiteit Twente 부설 CHEPS	42
	독일	Universität Kassel 부설 INCHER	13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부설 CSHE	21
	일본	히로시마 대학(広島大学) 부설 RIHE	39
기타 해외 연구소	Nat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Management System(NCHEMS)		27
	The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Policy(IHEP)		65
	계		438

4) 예를 들면, 미국사립대학 연구 프로그램(PROPHE)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이 제공되는 보고서가 총 13개였는데 주로 PRPHE의 연구소장인 Daniel C. Levy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연구 동향을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었고, 영국(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의 경우도 영국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된 통계 분석 등이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았으며,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y and Land Grant Colleges와 IAU는 각각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나 저널은 제공하지만 정책보고서는 발행하지 않아 역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우도 정책보고서를 생산하기 보다는 주로 학술지 등을 통해 연구 활동을 하거나, 정책보고서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일로 제공하지 않는 곳은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2. 자료수집 및 처리

앞서 언급한 해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고등교육 정책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웹상에서 PDF 파일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인터넷주문을 통해 구입하거나, 일부 기관의 경우(네덜란드 Twente 대학의 CHEPS; 독일의 Kassel 대학의 INCHER) 직접 방문하여 보고서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OECD, UNESCO, World Bank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기관(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서 이들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공동연구진으로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처리는 정책연구보고서의 제목, 목차, 요약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설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설정된 상위주제 및 하위주제 중 가장 적절한 곳으로 코딩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하나의 정책보고서가 복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복수의 영역에 모두 포함시켜 빈도를 계산하는 방식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특정의 한 영역으로만 분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송미섭, 1991; 조동섭 외, 2008; 신정철 외, 2008)에서와 같이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하나의 주제영역에만 코딩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분류기준에 따라 주제별·시기별·지역별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수와 백분율(%)을 함께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주제별 연구동향 분석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4개 주요 해외 고등교육 연구 수행기관에서 2000~2009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총 438편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12개 상위 주제영역으로 살펴 본 해외 고등교육 정책연구 동향에 따르면 전체 분석대상 연구물 438편 중 학생과 관련된 연구가 16%(70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재정/경제에 대한 연구가 11.9%(52편), 행정/지배구조에 대한 연구가 11.0%(48편), 국가/비교연구가 10.3%(45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직원에 대한 연구는 3.4%(15편), 기획/미래전망에 대한 연구는 3.7%(16편)로 다소 적었다.

<표 6> 주제별 해외 고등교육 정책연구 동향 분석

주제		연구수 (편)	비율 (%)
노동시장/ 자격 (N=28, 6.4%)	인력수급/노동시장정보	7	1.6
	진로지도 및 취업률	4	0.9
	직업교육/학습·고용연계	10	2.3
	학위/자격/소양	7	1.6
연구/산학협력 (N=38, 8.7%)	연구정책 및 거버넌스	5	1.1
	국가/지역혁신체계	21	4.8
	산학협력	12	2.7
학생 (N=70, 16.0%)	입학정책	8	1.8
	중도탈락/학업성취도/학교생활	18	4.1
	접근기회/형평성	40	9.1
	남녀평등	4	0.9
재정/경제 (N=52, 11.9%)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3	0.7
	재원확보	13	3.0
	재원 배분방식	9	2.1
	재정지원 성과평가	6	1.4
	등록금/장학금	21	4.8
교직원 (N=15, 3.4%)	교수	10	2.3
	행정가	5	1.1
행정/지배구조 (N=48, 11.0%)	대학 자율성/지배구조	17	3.9
	구조조정/특성화	1	0.2
	학제/시스템 구성	16	3.7
	고등교육법령/기준	1	0.2
	학사행정	3	0.7
	경영혁신	10	2.3
책무성/질 보장 (N=42, 9.6%)	대학평가/정보공개	8	1.8
	평가인증(accreditation)	5	1.1
	교육의 질 보장	29	6.6
국제화/세계화 (N=25, 5.7%)	국제화 일반	3	0.7
	학생/연구자 이동	4	0.9
	교육협력	14	3.2
	시장개방	4	0.9
교수학습/교육과정/ICT (N=39, 8.9%)	교수/학습 방법	8	1.8
	커리큘럼	13	3.0
	ICT 활용	18	4.1
기획/미래전망 (N=16, 3.7%)	시나리오/비전	8	1.8
국가/비교연구 (N=45, 10.3%)	체제개혁/경쟁력 향상	8	1.8
	국가연구	21	4.8
	비교연구	24	5.5
기타 (N=20, 4.6%)	고등교육 통계	6	1.4
	고등교육기관 분류	2	0.5
	대학사/철학	2	0.5
	사회적 자본	3	0.7
	특정분야 교육기관	7	1.6
합계		438	100

주제별 분류를 하위주제로 세분해 보면, ‘접근기회/형평성’ 9.1%(40편)를 비롯해 ‘교육의 질 보장’ 6.6%(29편), ‘비교연구’ 5.5%(24편), ‘국가/지역혁신체계’ 4.8%(21편), ‘등록금/장학금’ 4.8%(21편) ‘국가연구’ 4.8%(21편) 등이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편 이하의 적은 수의 연구가 수행된 영역은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학사행정’, ‘국제화 일반’, ‘사회적 자본’ 등이 3편, ‘고등교육기관 분류’, ‘대학사/철학’이 2편, ‘구조조정/특성화’, ‘고등교육법령/기준’이 1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위주제보다는 세분하여 하위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보게 되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고등교육 정책연구 주제의 지역별 · 시기별 분석

1) 지역별: 유럽/미국/일본/호주

연구수행기관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연구 동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⁵⁾ 유럽지역은 ‘국가/비교 연구’ 18.5%(30편), ‘행정/지배구조’ 16.0%(26편), ‘책무성/질 보장’ 14.8%(24편), ‘국제화/세계화’ 11.7%(19편) 순으로, 미국에서는 ‘학생’ 23.1%(50편), ‘재정/경제’ 19.4%(42편), ‘연구/산학협력’ 12.0%(26편)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호주의 경우는 ‘학생’ 33.3%(7편), ‘교수학습/교육과정/ICT’ 23.8%(5편), ‘노동시장/자격’ 19.0%(4편) 순으로 연구가 많았고, 일본은 ‘학생’ 20.5%(8편), ‘교직원’ 20.5%(8편), ‘교수학습/교육과정/ICT’ 17.9%(7편)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를 하위주제 수준으로 세분화해서 보면, 유럽의 경우 교육의 질 보장 11.1%(18편), 비교연구 11.1%(18편), 학제/시스템 구성 8.6%(14편) 순으로 정책연구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는 2000년대에 유럽통합과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후속조치(예: 학제개편, 국경을 넘는 교육의 질보장, 타 국가와의 비교연구 등)를 위한 제반 정책연구를 이들 국제기구와 고등교육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접근기회/형평성 15.3%(33편), 등록금/장학금 8.8%(19편), 국가/지역혁신체계 8.3%(18편) 순으로 연구가

5) 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에서 주요업무와 연구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지역에 소속되는 기관이라고 분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부 소재지에 따라 국제기구의 분위기, 나아가 연구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기구의 본부 소재지를 기준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편입시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분류에 해당하는 연구수행기관은 유럽의 OECD; UNESCO; Eurydice; CHEPS; EUA; INCHER, 미국의 World Bank; NCHEMS; IHEP; HERI; CHEPA; CSHE-UCBerkeley, 호주의 CSHE-Univ.of Melbourne; 일본의 RIHE로 정리하였다.

많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학생의 복지와 지원을 위한 연구주제에 그 동안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소수민족 등 학생복지 문제에 많은 연구노력을 기울였던 미국 고등교육 연구의 전통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7> 지역별 해외 고등교육 정책연구 동향

상위주제	하위주제	국제기구		유럽		유럽2		미국		미국2		호주		일본		전체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노동시장 / 자격	인력수급/노동시장정보	0	0.0	3	1.9	3	5.5	4	1.9	4	3.1	0	0.0	0	0.0	7	1.6
	진로지도 및 취업률	2	1.0	0	0.0	0	0.0	3	1.4	1	0.8	1	4.8	0	0.0	4	0.9
	직업교육/학습·고용연계	3	1.6	2	1.2	2	3.6	5	2.3	2	1.5	1	4.8	2	5.1	10	2.3
	학위/자격/소양	4	2.1	4	2.5	0	0.0	0	0.0	0	0.0	2	9.5	1	2.6	7	1.6
연구/ 산학협력	연구정책 및 거버넌스	3	1.6	4	2.5	1	1.8	0	0.0	0	0.0	0	0.0	1	2.6	5	1.1
	국가/지역혁신체계	21	10.9	3	1.9	0	0.0	18	8.3	0	0.0	0	0.0	0	0.0	21	4.8
	산학협력	11	5.7	4	2.5	0	0.0	8	3.7	1	0.8	0	0.0	0	0.0	12	2.7
학생	입학정책	2	1.0	0	0.0	0	0.0	5	2.3	3	2.3	0	0.0	3	7.7	8	1.8
	중도탈락/학업성취도/학교생활	0	0.0	0	0.0	0	0.0	12	5.6	12	9.2	4	19.0	2	5.1	18	4.1
	접근기회/형평성	5	2.6	2	1.2	1	1.8	33	15.3	29	22.3	3	14.3	2	5.1	40	9.1
	남녀평등	2	1.0	3	1.9	1	1.8	0	0.0	0	0.0	0	0.0	1	2.6	4	0.9
재정/ 경제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3	1.6	0	0.0	0	0.0	3	1.4	0	0.0	0	0.0	0	0.0	3	0.7
	재원확보	10	5.2	2	1.2	0	0.0	11	5.1	3	2.3	0	0.0	0	0.0	13	3.0
	재원 배분방식	3	1.6	5	3.1	4	7.3	4	1.9	2	1.5	0	0.0	0	0.0	9	2.1
	재정지원 성과평가	1	0.5	1	0.6	1	1.8	5	2.3	4	3.1	0	0.0	0	0.0	6	1.4
교직원	등록금/장학금	0	0.0	2	1.2	2	3.6	19	8.8	19	14.6	0	0.0	0	0.0	21	4.8
	교수	1	0.5	4	2.5	3	5.5	0	0.0	0	0.0	1	4.8	5	12.8	10	2.3
	행정가	0	0.0	0	0.0	0	0.0	2	0.9	2	1.5	0	0.0	3	7.7	5	1.1
행정/ 지배구조	대학자율성/지배구조	11	5.7	6	3.7	1	1.8	10	4.6	4	3.1	0	0.0	1	2.6	17	3.9
	구조조정/특성화	1	0.5	0	0.0	0	0.0	1	0.5	0	0.0	0	0.0	0	0.0	1	0.2
	학제/시스템 구성	12	6.2	14	8.6	3	5.5	1	0.5	0	0.0	0	0.0	1	2.6	16	3.7
	고등교육법령/기준	0	0.0	0	0.0	0	0.0	1	0.5	1	0.8	0	0.0	0	0.0	1	0.2
	학사행정	2	1.0	2	1.2	0	0.0	0	0.0	0	0.0	1	4.8	0	0.0	3	0.7
	경영혁신	4	2.1	4	2.5	0	0.0	5	2.3	5	3.8	0	0.0	1	2.6	10	2.3
책무성/ 질 보장	대학평가/정보공개	2	1.0	2	1.2	0	0.0	5	2.3	5	3.8	0	0.0	1	2.6	8	1.8
	평가인증	4	2.1	4	2.5	0	0.0	1	0.5	1	0.8	0	0.0	0	0.0	5	1.1
	교육의 질 보장	20	10.4	18	11.1	2	3.6	10	4.6	6	4.6	1	4.8	0	0.0	29	6.6
국제화/ 세계화	국제화 일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7.7	3	0.7
	학생/연구자 이동	2	1.0	3	1.9	1	1.8	0	0.0	0	0.0	0	0.0	1	2.6	4	0.9
	교육협력	12	6.2	12	7.4	2	3.6	2	0.9	0	0.0	0	0.0	0	0.0	14	3.2
	시장개방	3	1.6	4	2.5	1	1.8	0	0.0	0	0.0	0	0.0	0	0.0	4	0.9
교수학습/ 교육과정/ ICT	교수/학습방법	0	0.0	0	0.0	0	0.0	2	0.9	2	1.5	3	14.3	3	7.7	8	1.8
	커리큘럼	1	0.5	5	3.1	5	9.1	3	1.4	2	1.5	1	4.8	4	10.3	13	3.0
	ICT 활용	6	3.1	4	2.5	1	1.8	13	6.0	10	7.7	1	4.8	0	0.0	18	4.1
미래전망	시나리오/비전	4	2.1	7	4.3	4	7.3	1	0.5	0	0.0	0	0.0	0	0.0	8	1.8
	체제개혁/경쟁력 향상	4	2.1	0	0.0	0	0.0	7	3.2	3	2.3	0	0.0	1	2.6	8	1.8
국가/ 비교연구	국가연구	15	7.8	12	7.4	5	9.1	8	3.7	0	0.0	0	0.0	1	2.6	21	4.8
	비교연구	14	7.3	18	11.1	9	16.4	6	2.8	1	0.8	0	0.0	0	0.0	24	5.5
기타	고등교육 통계	1	0.5	3	1.9	2	3.6	3	1.4	3	2.3	0	0.0	0	0.0	6	1.4
	고등교육기관 분류	0	0.0	1	0.6	1	1.8	1	0.5	1	0.8	0	0.0	0	0.0	2	0.5
	대학사/철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5.1	2	0.5
	사회적 자본	0	0.0	0	0.0	0	0.0	2	0.9	2	1.5	1	4.8	0	0.0	3	0.7
	특정분야 교육기관	4	2.1	4	2.5	0	0.0	2	0.9	2	1.5	1	4.8	0	0.0	7	1.6
합 계		193	100	162	100	55	100	216	100	130	100	21	100	39	100	438	100

주) 1. 유럽 (OECD/ UNESCO/ Eurydice / CHEPS / EUA / INCHER); 유럽 2(CHEPS / INCHER)

2. 미국 (WORLD BANK/ NCHEMS/ IHEP/ HERI/ USC-CHEPA/ CSHE-UCBerkeley);

미국 2(NCHEMS/ IHEP/ HERI/ USC-CHEPA/ CSHE-UCBerkeley)

3. 호주(CSHE-Univ.of Melbourne); 4. 일본(RIHE)

한편 호주의 경우, 중도탈락/학업성취도/학교생활 19.0%(4편), 접근기회/형평성과 교수/학습방법이 각각 14.3%(3편), 학위/자격/소양 9.5%(2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과 같이 대학 현장 중심의 연구경향을 보여준과 동시에, 국가자격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국가답게 학위/자격/소양 등에 대한 연구 비중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일본의 경우, 교수 12.8%(5편)와 커리큘럼 10.3%(4편)가 상대적으로 연구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연구동향 분석에 사용된 분석대상 정책연구 보고서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어, 지역별 연구동향의 차이로 연결시키는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를 본부의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분류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국제기구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여 (1)국제기구, (2) 미국, (3) 유럽(네덜란드/독일), (4) 호주, (5) 일본으로 세분화하고, 이들 지역/범주간 정책연구 동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 보았다. <표 7>에서 제시된 ‘유럽 2’, ‘미국 2’의 범주는 소재 지역 혹은 국가에 소재한 국제기구를 제외한 해당지역의 순수 고등교육 정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주제별 연구 빈도수만을 나타낸 것이다.

국제기구를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2000년대 발표한 연구물들을 상위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국제기구의 연구 성과를 포함했을 때에 비해 매우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그룹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많은 상위주제 영역은 미국의 경우 학생 33.8%(44편), 재정경제 21.5%(28편), 교수학습/교육과정/ICT 10.8%(14편), 유럽(네덜란드/독일)의 경우 국가/비교연구 25.5%(14편), 재정/경제 12.7%(7편), 교수학습/교육과정/ICT 10.9%(6편)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는 연구/산학연 협력 18.1%(35편), 행정/지배구조 15.5%(30편), 국가/비교연구 15.0%(29편)로 나타났다. 미국은 World Bank를 제외했을 때, 연구/산학연 협력이 12.0%(26편)에서 0.8%(1편)로 감소했고, 국가/비교연구는 6.5%(14편)에서 0.8%(1편)로 감소했다. 한편, 유럽의 경우에도 국제기구를 제외했을 때 책무성/질보장이 14.8%(24편)에서 3.6%(2편)로, 행정/지배구조가 16.0%(26편)에서 7.3%(4편)으로, 국제화/세계화가 11.7%(19편)에서 7.3%(4편)로, 연구/산학연 협력도 6.8%(11편)에서 1.8%(1편)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World Bank, OECD, UNESCO, Eurydice 등 국제기구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시기별: 2000년대 상반기 vs. 하반기

고등교육 연구주제를 시기별로 분석하기 위해서 2000~2004년을 상반기로, 2005~2009년을 하반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시기별 해외 고등교육 정책연구 동향 분석

주 제		상 반 기			하 반 기		
		편수	비율 (%)	소계 (%)	편수	비율 (%)	소계 (%)
노동시장 / 자격	인력수급/노동시장정보	1	0.5	11 (6.3)	6	2.3	17 (6.5)
	진로지도 및 취업률	3	1.7		1	0.4	
	직업교육/학습 · 고용연계	4	2.2		6	2.3	
	학위/자격/소양	3	1.7		4	1.5	
연구/ 산학협력	연구정책 및 거버넌스	2	1.1	5 (2.8)	3	1.2	33 (12.6)
	국가/지역혁신체계	2	1.1		19	7.3	
	산학협력	1	0.5		11	4.2	
학생	입학정책	4	2.2	24 (13.6)	4	1.5	46 (17.6)
	중도탈락/학업성취도/학교생활	7	4.0		11	4.2	
	접근기회/형평성	10	5.6		30	11.5	
	남녀평등	3	1.7		1	0.4	
재정/경제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1	0.5	26 (14.8)	2	0.8	26 (9.9)
	재원확보	5	2.8		8	3.1	
	재원 배분방식	6	3.4		3	1.5	
	재정지원 성과평가	1	0.5		5	1.9	
	등록금/장학금	13	7.4		8	3.1	
교직원	교수	2	1.1	6 (3.4)	8	3.1	9 (3.4)
	행정가	4	2.2		1	0.4	
행정/ 지배구조	대학 자율성/지배구조	6	3.4	20 (11.4)	11	4.2	28 (10.7)
	구조조정/특성화	1	0.5		0	-	
	학제/시스템 구성	7	4.0		9	3.4	
	고등교육법령/기준	1	0.5		0	-	
	학사행정	1	0.5		2	0.8	
	경영혁신	4	2.2		6	2.3	
책무성/ 질 보장	대학평가/정보공개	6	3.4	20 (11.4)	2	0.8	22 (8.4)
	평가인증(accreditation)	3	1.7		2	0.8	
	교육의 질 보장	11	6.3		18	6.9	
국제화/ 세계화	국제화 일반	0	-	10 (5.7)	3	1.2	15 (5.7)
	학생/연구자 이동	2	1.1		2	0.8	
	교육협력	7	4.0		7	2.7	
	시장개방	1	0.5		3	1.2	
교수학습/교육 과정/ ICT	교수/학습 방법	4	2.2	19 (10.8)	4	1.5	20 (7.6)
	커리큘럼	4	2.2		9	3.4	
	ICT 활용	11	6.3		7	2.7	
	시나리오/비전	3	1.7		5	1.9	
미래전망 국가/ 비교연구	체제개혁/경쟁력 향상	4	2.2	18 (10.2)	4	1.5	27 (10.3)
	국가연구	7	4.0		14	5.3	
	비교연구	11	6.3		13	5.0	
	고등교육 통계	3	1.7		3	1.2	
기타	고등교육기관 분류	1	0.5	10 (5.7)	1	0.4	10 (3.8)
	대학사/철학	1	0.5		1	0.4	
	사회적 자본	0	-		3	1.2	
	특정분야 교육기관	5	2.8		2	0.8	
	합계	176	100		262	100	

고등교육 연구주제를 시기별로 보면, 우선 상위주제의 연구동향은 상반기에는 ‘재정/경제’에 대한 연구가 14.8%(26편)로 가장 많았고, 하반기에는 ‘학생’에 대한 연구가 17.6%(46편)로 가장 많았다. 하위주제 영역까지 세분하여 분류해 본 결과, 상반기에 단 1편(0.5%)의 연구보고서 밖에 없었던 ‘인력수급/노동시장정보’에 대한 연구가 하반기에는 6편(2.3%)으로 증가한 것을 비롯해, ‘국가/지역 혁신체계’에 대한 연구도 상반기 2편(1.1%)에서 하반기에는 19편(7.3%)으로, ‘산학협력’ 연구도 상반기 1편(0.5%)에서 하반기에 11편(4.2%)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접근기회/형평성’에 대한 연구가 상반기 10편(5.6%)에서 하반기 30편(11.5%)으로, ‘재정지원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가 상반기 1편(0.5%)에서 하반기 5편(1.9%)으로, ‘교수’에 대한 연구가 상반기 2편(1.1%)에서 하반기 8편(3.1%)으로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러한 시기별 분석결과를 다시, 앞서 설정한 지역별 범주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학생(21.2%, 11편 => 42.3%, 33편), 노동시장/자격(1.9%, 1편 => 7.7%, 6편), 유럽의 경우 국가/비교연구(16.0%, 4편 => 33.3%, 10편), 노동시장/자격(4.0%, 1편 => 13.3%, 4편), 호주의 경우 교수/교육과정/ICT (0.0%, 0편 => 38.5%, 5편), 학생(62.5%, 5편 => 15.4%, 2편), 일본의 경우 교수/교육과정/ICT(33.3%, 6편 => 4.8%, 1편), 학생(11.1%, 2편 => 28.6%, 6편)로 연구동향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기구의 경우 연구/산학협력(5.5%, 4편 => 25.8%, 31편)에서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 하반기에 걸쳐 안정된 연구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3. 해석 및 논의

이제까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석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의 고등교육 연구는 교육소비자의 입장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생’에 관한 연구가 16.0%를 차지해 이 주제로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이라는 상위주제에 포함된 연구 70편중에서 40편이 ‘접근기회/형평성’에 관한 것으로, 해당 영역 내에서는 57.1%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438편의 연구물 중에서도 9.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미루어 볼 때, 해외의 고등교육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는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누가 고등교육을 받는가(접근기회/

형평성: 9.1%, 40편), 교육 서비스의 비용은 얼마인가(등록금/장학금: 4.8%, 21편) 등 차별 없는 고등교육기회 확보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경을 넘는 교육활동(cross-border education activities)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질(교육의 질 보장: 6.6%, 29편), 국가/비교연구(국가연구: 4.8%, 21편; 비교연구: 5.5%, 24편)와 같은 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일단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해외 연구 기관에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해외연구 동향은 지역별로 연구주제에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분화된 국가/지역별 범주화를 통해 상호비교를 한 결과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앞서 해외를 전체로 묶었을 때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주제였던 ‘학생’의 경우 사실상 미국, 호주, 일본의 경우에만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 유럽이나 국제기구에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주제라는 점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가장 많이 산출된 정책연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 미국, 호주, 일본은 ‘학생’, 유럽(네덜란드/독일)은 ‘국가/비교연구’ 영역에서 가장 활발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졌다. 각 국가별, 지역별로 정책적 관심 혹은 정부가 주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별/지역별 차이는 하위 주제로 내려갈수록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예컨대 가장 연구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학생 영역의 경우에도, 미국은 주로 접근기회/형평성(22.3%, 29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 중도탈락/학업성취도/학교생활(19.0%, 4편)과 접근기회/형평성(14.3%, 3편) 2개 영역에, 일본의 경우 입학정책(7.7%, 3편), 중도탈락/학업성취도/학교생활(5.1%, 2편), 접근기회/형평성(5.1%, 2편) 3개 영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보다 세부적인 정책연구 관심영역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연구의 결과, 미국과 유럽 지역의 경우 연구동향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샘플의 구성상 네덜란드의 연구경향을 보다 많이 대표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경우 국가/비교연구(25.5%, 14편), 재정/경제(12.7%, 7편)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미국의 경우 주로 학생(33.8%, 44편), 재정/경제(21.5%, 28편), 교수학습/교육과정/ICT(10.8%, 14편)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하위주제 수준에서 볼 때도, 미국의 경우 학생영역의 접근기회/형평성(22.3%, 29편), 등록금/장학금(14.6%, 19편), 중도탈락/학업성취도/학교생활(12편, 9.2%) 등 ‘현장 중심적, 대학 내부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비교연구(16.4%, 9편), 국가연구(9.1%, 5편), (국가차원의) 커리큘럼 연구(9.1%, 5편) 등이 많아

‘거시적, 시스템적, 국가 정책적 수준’의 연구가 많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단위대학 행정문제 연구부서(Institutional Research Office)’가 설치되어 대학운영에 적극적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연구동향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이러한 전통이 없이 국가수준의 고등교육 발전전략과 정책을 주로 연구해 온 유럽의 경우 당연히 거시적, 정책적 차원의 연구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9> 2000년대 상/하반기 해외 고등교육 정책연구 동향비교: 최다빈도 상위/하위주제

주제	순위	국제기구		미국		유럽 (독일+네덜란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위 주제	1	국가/비교연구 (19.2%,14편)	연구/산학협력 (25.8%,31편)	재정/경제 (26.9%,14편)	학생 (42.3%,33편)	재정/경제 (24.0%,6편)	국가/비교연구 (33.0%,10편)
	2	행정/지배구조 (15.1%,11편)	행정/지배구조 (15.8%,19편)	학생 (21.2%,11편)	재정/경제 (17.9%,14편)	국가/ 비교연구 (16.0%,4편)	교수학습/교육 과정/ICT (13.3%,4편)
	3	책무성/질 보장 (15.1%,11편)	국가/비교연구 ;책무성/질보장 (12.5%,15편)	교수학습/ 교육과정/ICT (15.4%,8편)	책무성/질 보장 (9.0%,7편)	행정/지배구조 (12.0%,3편)	노동시장/ 자격 (13.3%,4편)
하위 주제	1	교육의 질 보장 (9.6%,7편)	국가/ 지역혁신체계 (15.8%,19편)	등록금/장학금 (21.2%,11편)	접근기회 /형평성 (32.1%,25편)	비교연구 (16.0%,4편)	비교연구 (16.7%,5편)
	2	국가연구 (9.6%,7편)	교육의 질 보장 (10.8%,13편)	ICT활용 (13.5%,7편)	등록금/장학금 (10.3%,8편)	재원 배분방식 (12.0%,3편)	국가연구 (16.7%,5편)
	3	비교연구 (9.6%,7편)	산학협력 (8.3%,10편)	접근기회/ 형평성 ;대학평가/정보공개 ;중도탈락/학업성취 도/학교생활 (7.7%,4편)	중도탈락/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10.3%,8편)	학제/시스템구성 (12.0%,3편)	커리큘럼 (13.3%,4편)

주제	순위	호주		일본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위 주제	1	학생 (62.5%,5편)	교수학습/교육과정/ ICT (38.5%,5편)	교수학습/교육과정/ ICT (33.3%,6편)	학생 (28.6%,6편)
	2	행정/지배구조 (12.5%,1편)	노동시장/ 자격 (23.1%,3편)	노동시장/ 자격 (16.7%,3편)	교직원 (23.8%,5편)
	3	책무성/질 보장 ;노동시장/ 자격 (12.5%,1편)	학생; 기타 (15.4%,2편)	교직원 (16.7%,3편)	국제화/세계화 (19.0%,4편)
하위 주제	1	중도탈락/학업성취도/ 학교생활 (37.5%,3편)	교수/학습방법 (23.1%,3편)	교수/학습방법 (16.7%,3편)	교수 (19.0%,4편)
	2	접근기회/형평성 (25.0%,2편)	학위/자격/소양 (15.4%,2편)	커리큘럼 (16.7%,3편)	국제화 일반 (14.3%,3편)
	3	교육의 질 보장 ;진로지도 및 취업률 (12.5%,1편)	8개주제 (7.7%,1편)	직업교육/ 학습 · 고용 연계 ;행정가 (11.1%,2편)	입학정책 ;중도탈락/학업성취도 /학교생활 (9.5%,2편)

셋째, 해외 고등교육 연구동향은 시기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국가에 따라 연구주제의 일관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기구(국가/비교연구, 행정/지배구조)와 미국(재정/경제, 학생)의 경우는 최다빈도수 상위 3개 연구주제 중 2개가 상/하반기에 걸쳐 일치되고 있어 상당한 일관성을 보였다. 반면에 유럽(국가/비교연구)과 호주(학생)의 경우는 1개 영역만 일치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전혀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 즉 상/하반기 연구주제의 변동이 국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주제를 통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하위주제 영역으로 분석의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유럽지역의 경우 하위주제영역에서 2000년대 상, 하반기 모두 비교연구(상반기 16.0%, 4편, ⇒ 하반기 16.7%, 5편)가 최다빈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200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유럽통합과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범유럽 고등교육통합지역 구축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그 만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해외 고등교육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대해 주제별 분류방식을 적용하여 그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주제가 시기별·지역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해외 연구기관의 고등교육 정책연구 동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고등교육 정책연구에서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가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쳐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의 연구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정책연구도 국가 정책적인 거시적 관점에서부터 실제 학생의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학현장의 미시적인 주제에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광범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의 연구 동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당장 중요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제 영역(예컨대 ‘국가/비교연구’, ‘기획/미래전망’ 등)에 대한 정책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정책연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미래에 쟁점이 될 이슈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들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연구도 당장 문제가 되는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연구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국내적 현안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학평가/정보공개, 대학입시 등 당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진(혹은 터지고 있는) 현안이슈 중심으로,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실용적’인 연구에만 몰두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시기별로 고등교육의 주요 이슈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러한 경향이 한국의 고등교육 연구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책연구의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러한 동향이 나타나게 된 상황적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고등교육의 변화에 특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상황 변화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세계화 동향과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의 고등교육 제도와 정책상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정부부처와 단위 대학별 연구소(Institutional Research Office)에서 생산하는 연구보고서가 대부분 누락되었다. 이들 보고서들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정책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그 숫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Altbach(1985)가 ‘감춰진 보고서(grey literature)’라고 언급할 정도로 학술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통한 검색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 보다 포괄적인 고등교육 정책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점에도 기인한다.

둘째, 이렇게 선정된 분석대상 기관 자체도 당초 설정한 목표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선정된 기관의 경우에도 PDF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 등 현실적 자료의 습득가능성이 제한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어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샘플링 바이어스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철저히 양적인 빈도분석에만 의존하였다.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맥락적 분석이나, 연구내용에 대한 질

적 분석을 병행했을 때 보다 깊이 있는 연구동향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시간·인력의 제약과 함께 질적 분석에 대한 객관성 확보의 문제 때문에 양적인 빈도 분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양적인 접근 뿐 아니라 보다 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구 흐름의 질이나 성과에 대한 논의에 심도 있는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변기용(2009). “고등교육의 학문적 성격과 지식기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33, 147-175.
- 송미섭(1991). 『한국 고등교육 관련문헌(1945-1981)의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정철, 정지선, 김양선, 박은경(2008). “고등교육의 학문적 연구 동향 분석: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5(3), 167-193.
- 신현석(2002). “단위학교 책무성의 동향분석 연구: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0(2), 151-178.
- 조동섭, 전제상, 김숙이(2008). 『고등교육정책 동향 분석 메타 연구』. 홍익대학교 특성화사업단.
- Altbach, P.G.(1986). Perspectives on Comparative Higher Education: A Survey of Research and Literature. ICED Occasional Paper 16.
- Altbach, P.G.(2006). Research and training in higher education: The state of the art. In Altbach, P.G., Bozeman, L.A., Janashia, N. & Rumbley, L.E (Eds.). *Higher education: A worldwide inventory of centers and programs*. Revised Edition. Sense Publishers
- Dressel, P. L. & Meyhew, L. B.(1974). *Higher education as a field of study*. Josey-Bass Publishers
- Goldschmidt, D., Teichler, U. & Webler, W-D. (eds.).(1984). *Forschungsgegenstand Hochschule*, Frankfurt/M. and New York:Campus
- OECD(2004). *OECD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Guidelines for country participation in the review*.
- Quay, R. H.(1885).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A guide to source bibliographies* (2nd. edition). Oryx Press.
- SRHE.(2004).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Abstracts*, 37(3).
- Silverman, R. J.(1987). How we know what we know: A study of higher education journal articles. *Review of Higher Education*, 11(1), 39-59.
- Teichler, U.(1996). Compative higher education: potentials and limits. *Higher Education*, 32, 431-465.
- Teichler, U.(2000).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ts institutional basis. In

- Schwarz, S. & Teichler, U. The institutional basis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eichler, U.(2003).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nd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9, 171-185.
- Volkwein, F., Carbone, D., Volkwein, E.(1988).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Fifteen years of scholarship.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8(3), 271-280.

[투고일 2010년 2월 1일/ 심사일 2010년 3월 10일/ 최종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15일]

변기용: University of Oregon. Ph. D.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전공은 고등교육.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국제화 등
E-mail: byun0905@korea.ac.kr

이석열: 충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현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과 학교조직론 등
E-mail: leesy@nsu.ac.kr

김수홍: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과정 중.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교 효과성, 대학 및 대학생 문화 등
E-mail: suhongcap@hotmail.com

Abstract

Trends of policy studies in foreig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topic analysis

Byun, Ki-Yong (Korea University)

Lee, Suk-Yeol (Namseoul University)

Kim, Su-Ho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s aiming to analyze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published from 2000 to 2009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and to draw some useful implications on future higher education policy making and research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438 policy studies from 14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topic, period, and regio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developed by the author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 that student related topics, in particular equity/access issue, were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opic, followed by quality assurance for cross-border education. In addition, the reviews of national higher education systems and comparative policy studies also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context of growing importance of globalization. This overall trend, however, varied depending upon the regions, and study periods concerned in the stud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directions of the future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put more focus on (1) institutional issues rather than system-level ones and also on (2) potential policy issues that may emerge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not just limited to currently challenged issues.

Key words: higher education, policy study, trends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study topic